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1. 07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1. 07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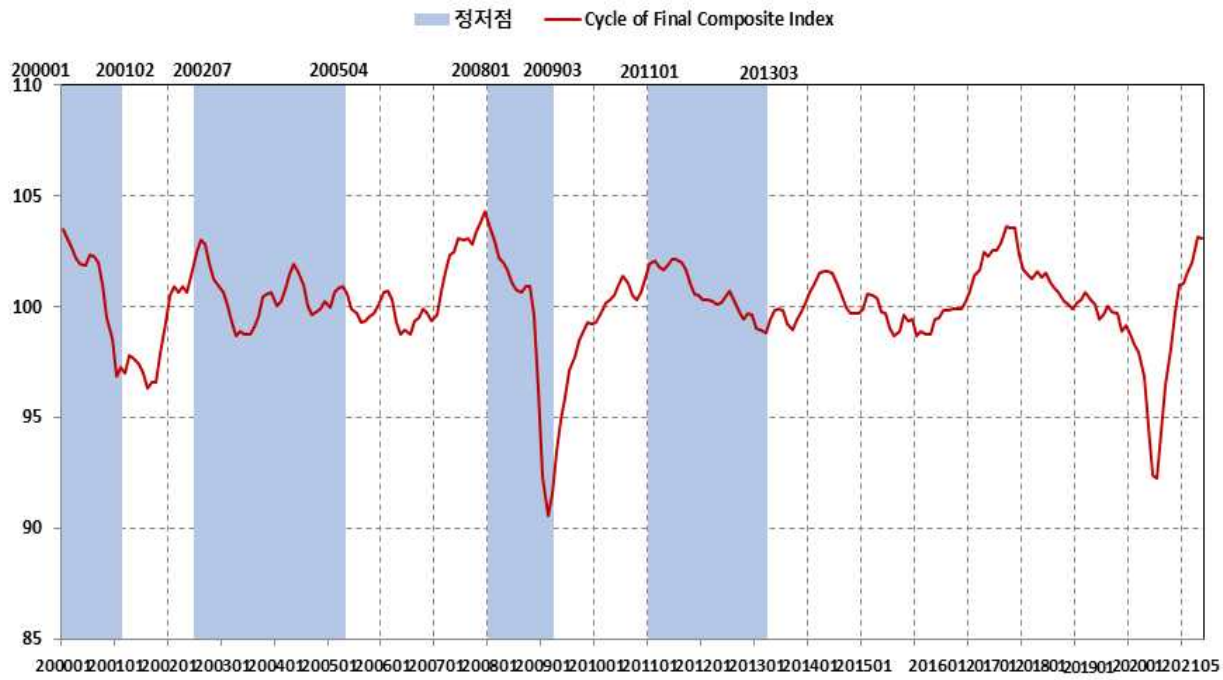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0.05
	BSI	21.07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1.06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1.06
	신용카드사용액	21.04
투 자	자본재수입액	21.06
건 설	건축허가면적	21.06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1.06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06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1.07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05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1.07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21.06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1.06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05

경북경제동향
총괄

경 기	• 지역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소폭 감소, 제조업 업황은 소폭 감소, 소비심리는 위축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자동찬 생산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판매액은 5월 잠재수요 폭증의 영향으로 감소
투 자	• 자본재 수입은 정밀기계,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 모든 품목에서 증가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학교, 관공서, 공장·창고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교 역	• 교역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수입은 철광이 크게 증가
고 용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4천 명), 제조업(-1만 9천 명)은 코로나19 여파 지속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지속
금 융	• 지난달에 이어 기업대출 증가폭은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주택거래량은 감소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 증가세는 주춤, 부도업체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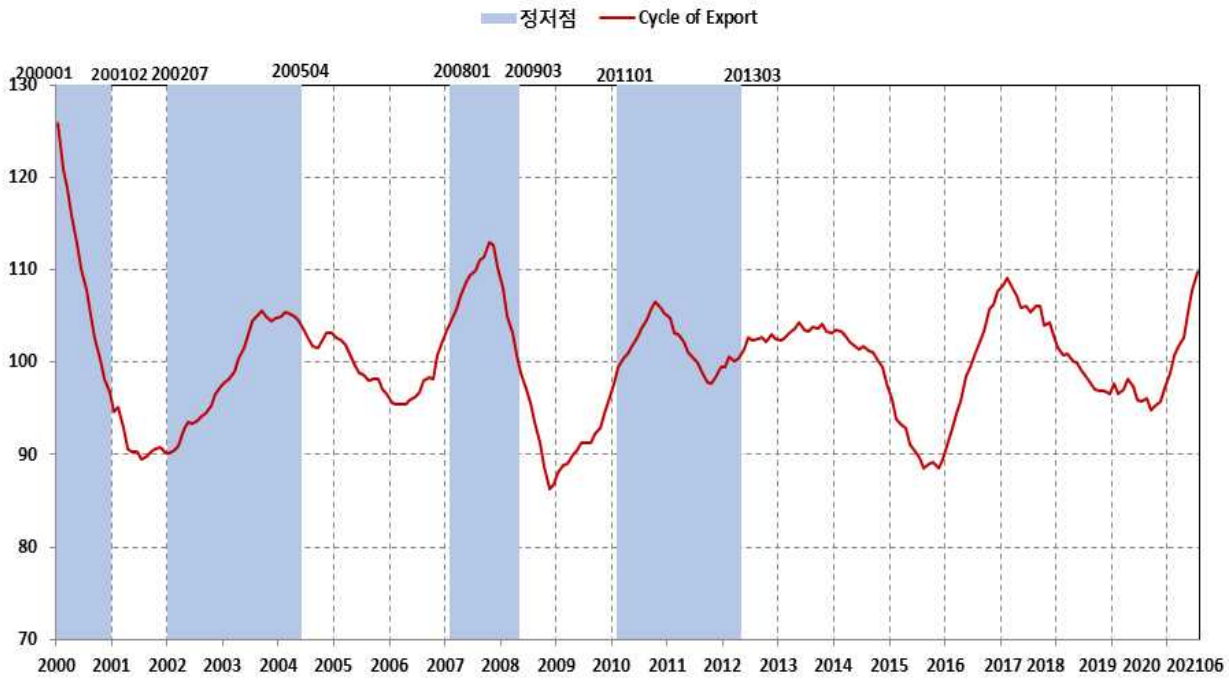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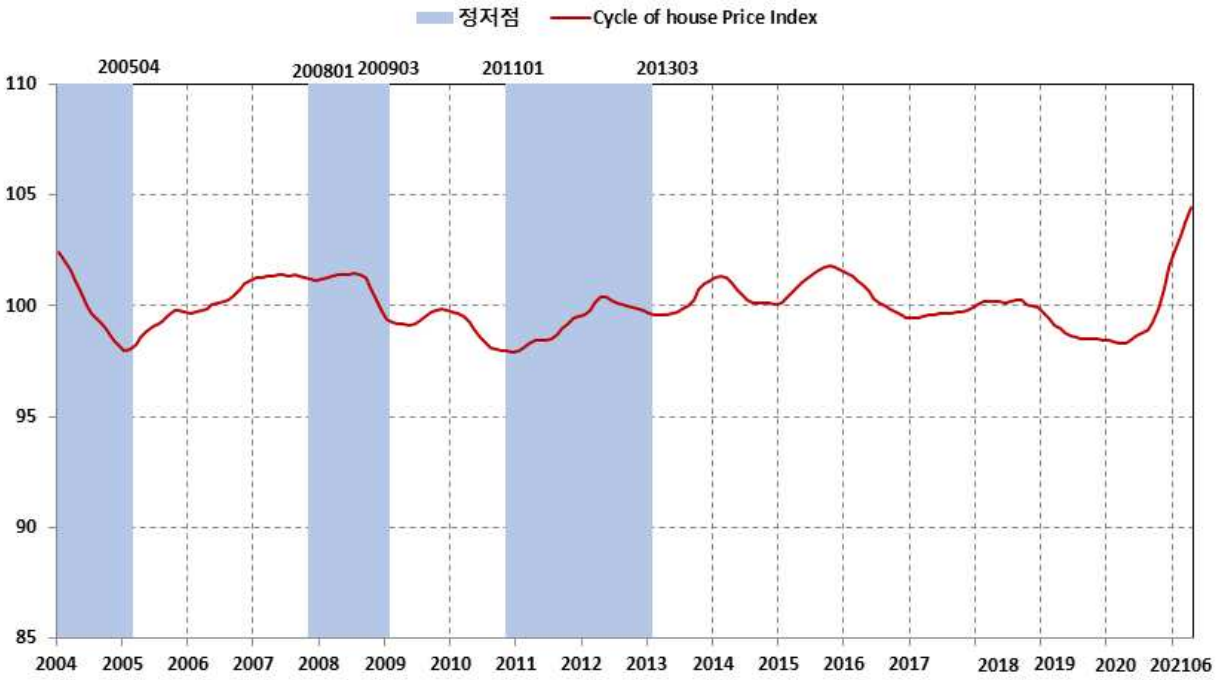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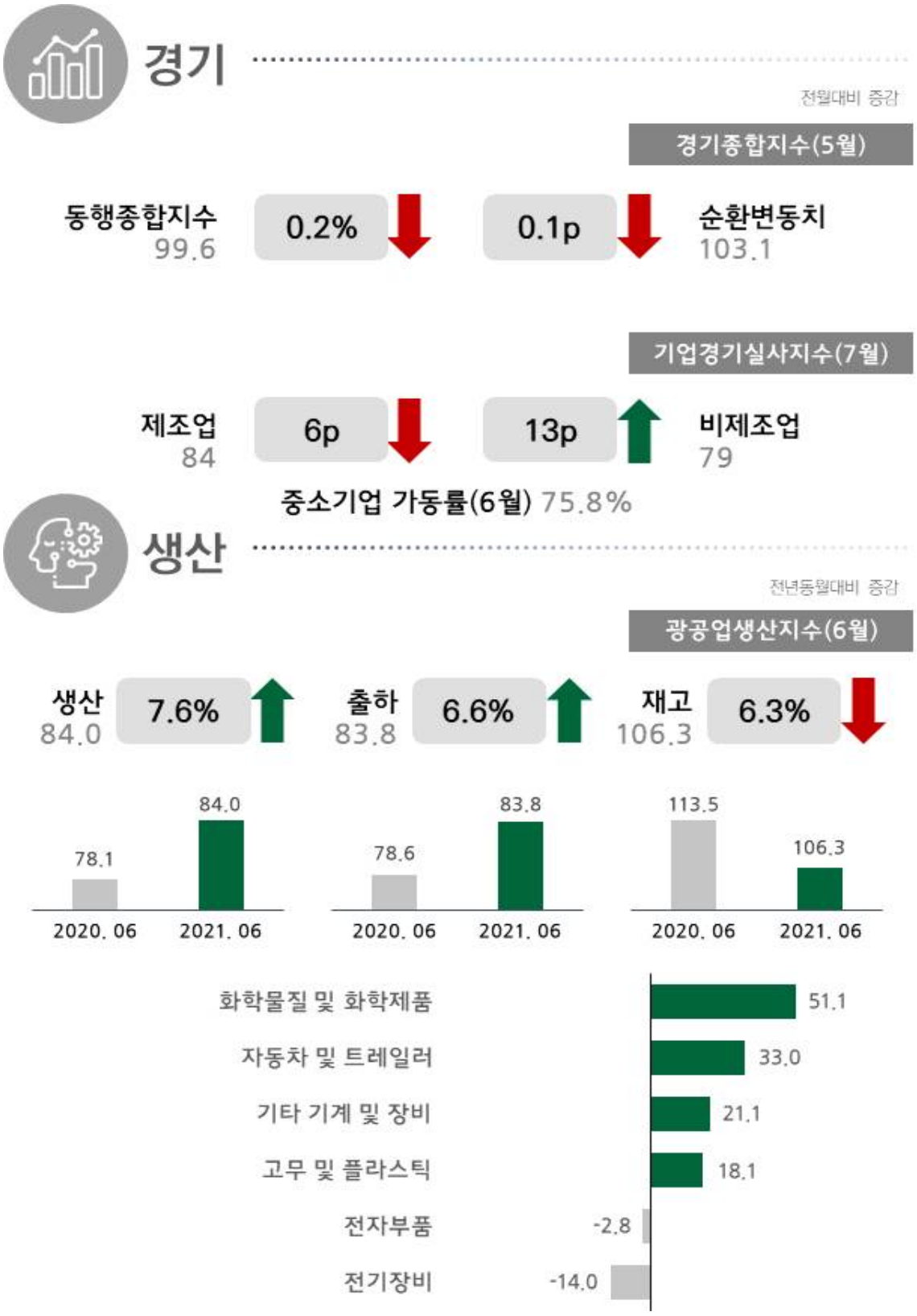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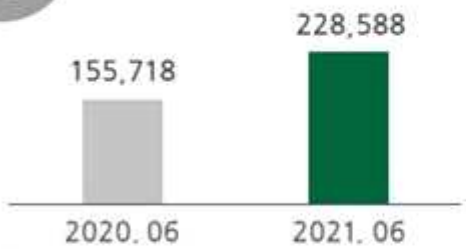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6월)	신용카드사용액(4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6월)
79.4	1조 113억 원	7,276대
0.8% ▲	17.8% ▲	15.1%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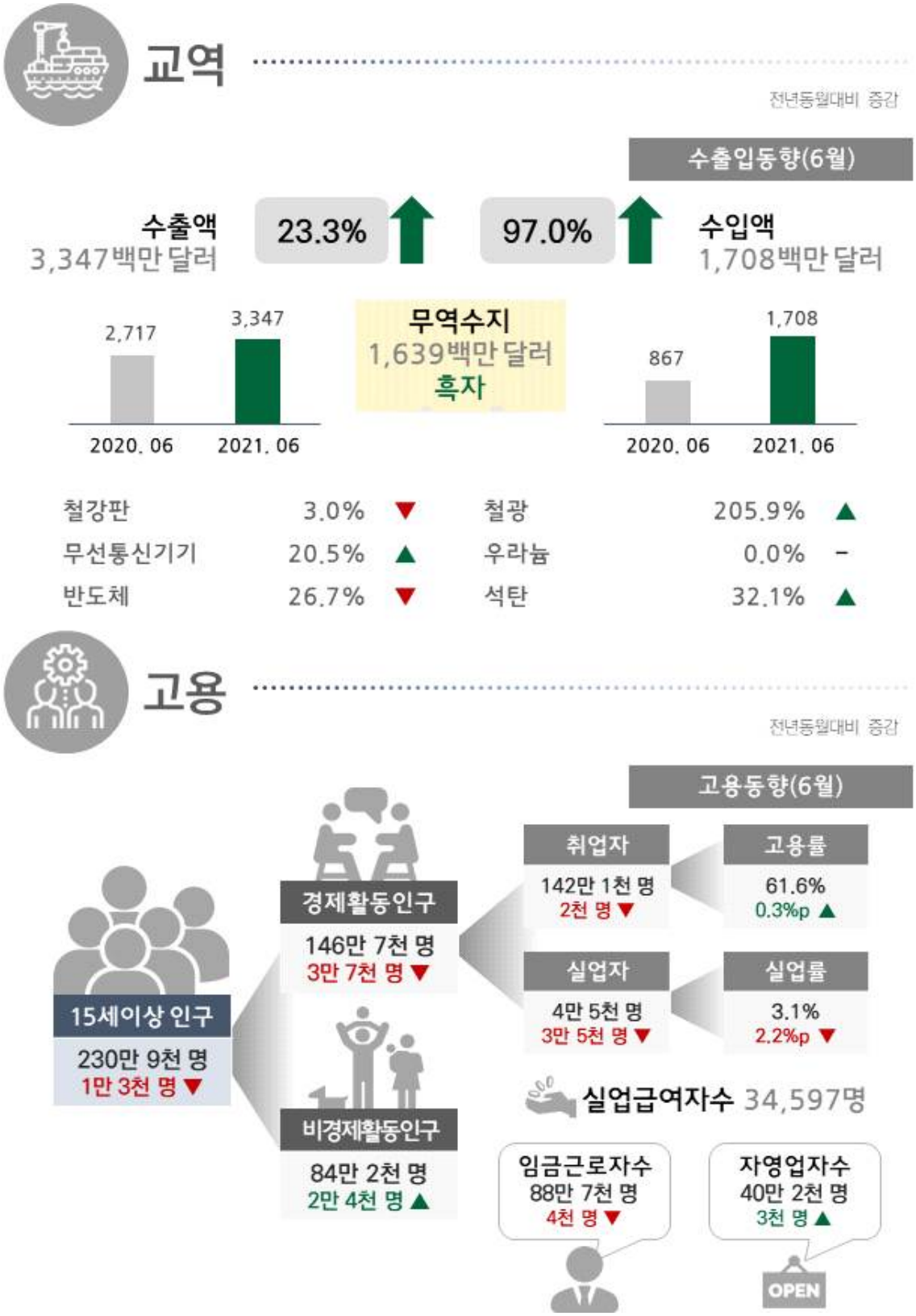
자본재수입액(6월)
228,588천 달러 46.1%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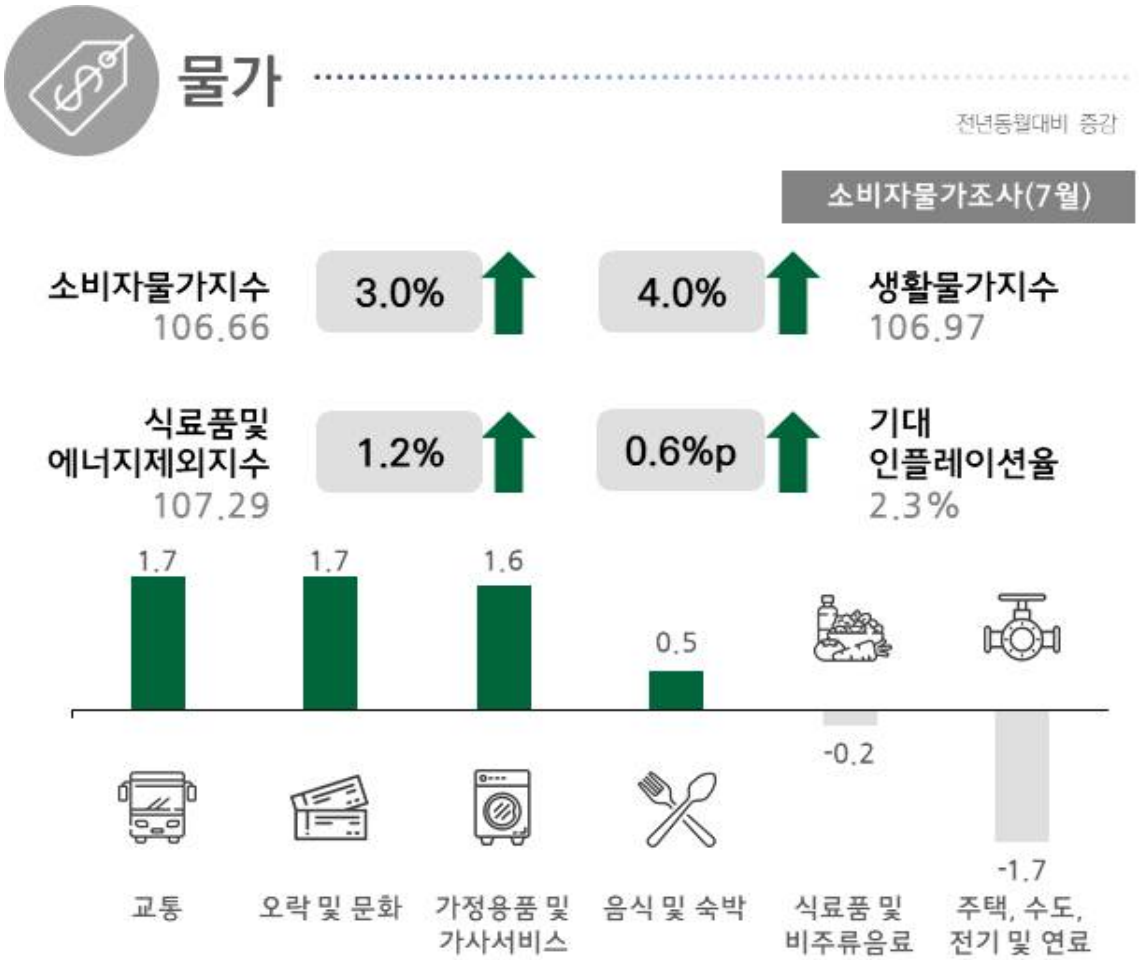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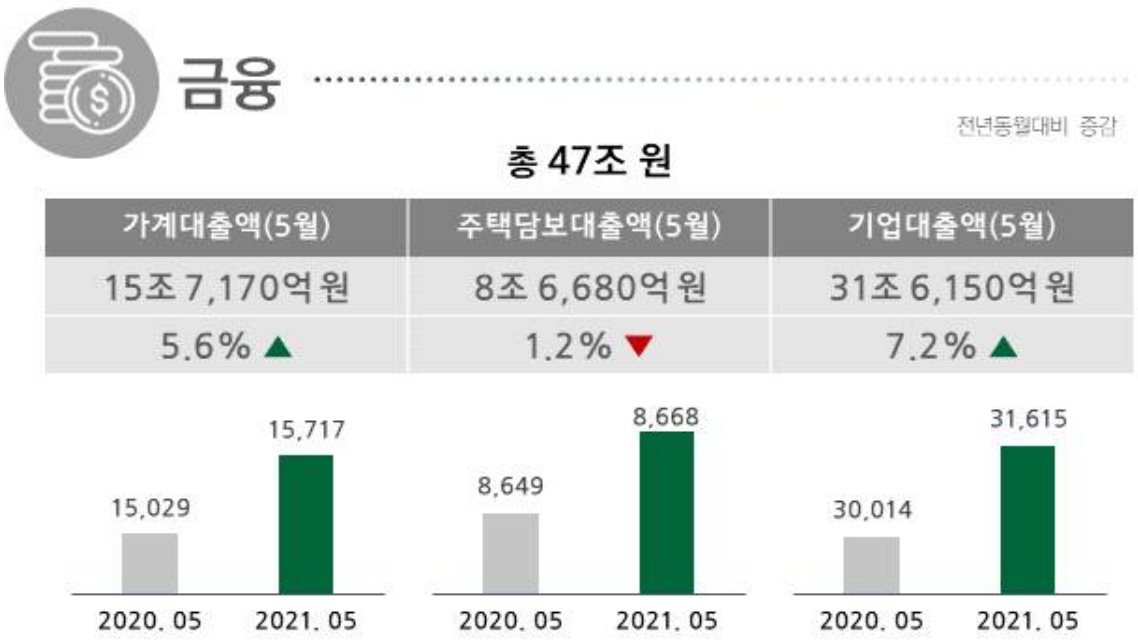
건축물허가면적(6월)	건축물착공면적(6월)	건설수주액(6월)
554,548㎡	814,452㎡	1조 418억 원
19.9% ▼	47.0% ▲	91.7%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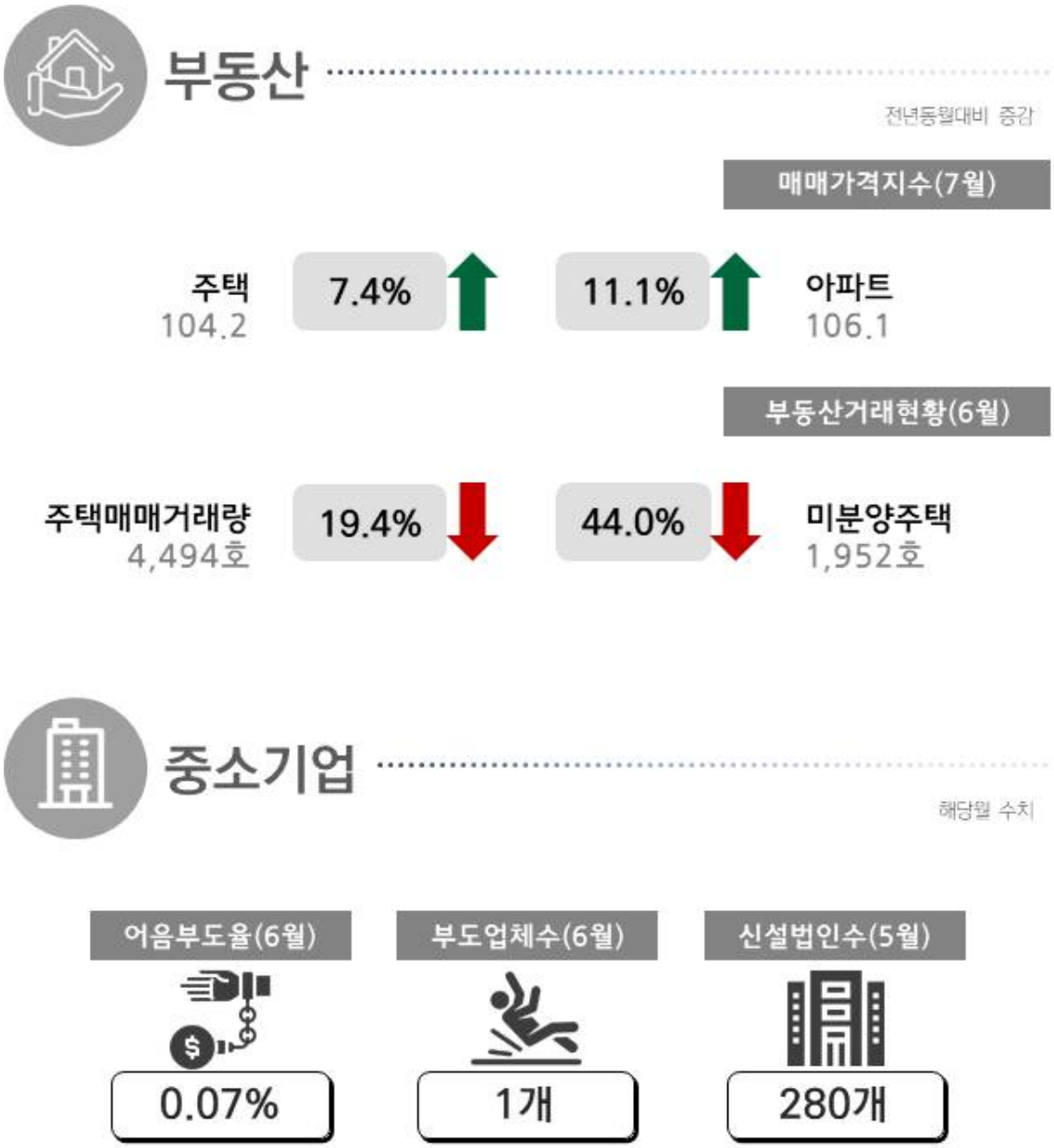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5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2%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99.6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순환변동치는 103.1로 전월차 0.1p 감소

-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0.2%), 제조업전력사용량(1.3%), 수입액(실질)(2.9%)은 증가,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1.0%),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2.6%),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3.7%), 수출액(실질)(-1.4%)은 감소

5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6.7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차 0.2p 증가

- 수입액(1.5%), 소매판매액지수(0.8%), 서비스업생산지수(0.5%)는 증가, 건설기성액(-2.0%), 광공업생산지수(-1.0%)는 감소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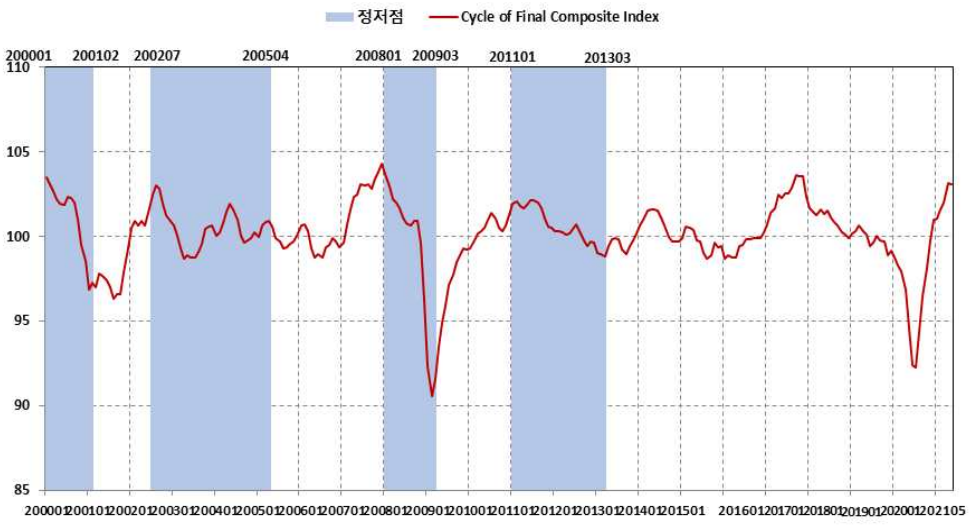
(2015=100)

구 분		2020	2021				
		12	01	02	03P	04P	05P
경북	동행종합지수	97.4	97.5	98.3	98.7	99.8	99.6
	전월대비(%)	1.2	0.1	1.2	0.4	1.1	-0.2
	순환변동치	101.0	101.1	101.6	102.0	103.2	103.1
	전월차(p)	1.3	0.1	0.5	0.5	1.2	-0.1
전국	동행종합지수	114.0	113.9	114.3	115.1	116.4	116.7
	전월대비(%)	0.2	-0.1	0.4	0.7	1.1	0.3
	순환변동치	99.7	99.4	99.7	100.2	101.2	101.4
	전월차(p)	0.2	-0.3	0.3	0.5	1.0	0.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7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감소, 비제조업 BSI 증가

7월 제조업 BSI는 84, 비제조업 BSI는 79

○ 제조업 업황BSI는 84로 전월대비 6p, 8월 업황 전망BSI는 81로 6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98로 전월대비 10p, 8월 전망은 91로 11p 각각 감소
- 생산BSI는 96으로 전월대비 13p, 8월 전망은 94로 10p 각각 감소
- 채산성BSI는 85로 전월대비 1p 감소, 8월 전망은 85로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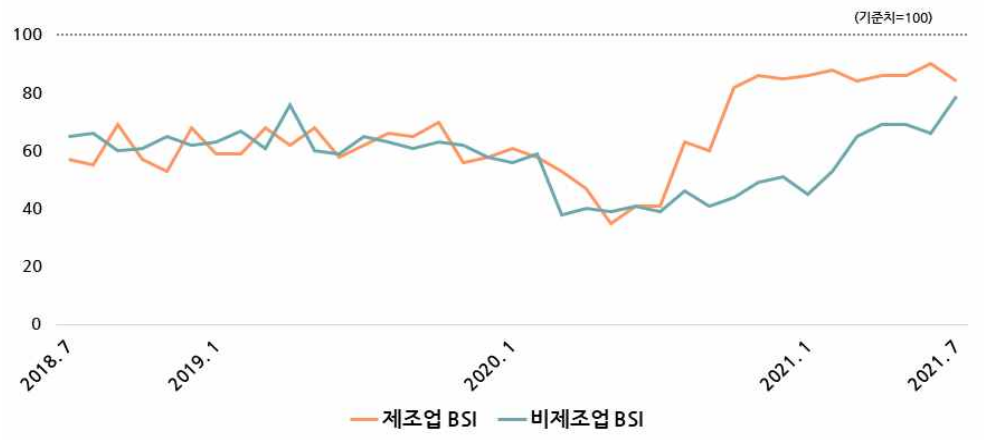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BSI는 79로 전월대비 13p, 8월 업황 전망BSI는 77로 5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80으로 전월대비 4p, 8월 전망은 78로 1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7로 전월대비 11p, 8월 전망은 85로 8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07	08
제조업 BSI	85 (78)	86 (82)	88 (81)	84 (86)	86 (92)	86 (91)	90 (85)	**84** **(87)**	– **(81)**
비제조업 BSI	51 (43)	45 (49)	53 (47)	65 (56)	69 (67)	69 (72)	66 (65)	**79** **(70)**	– **(77)**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년 7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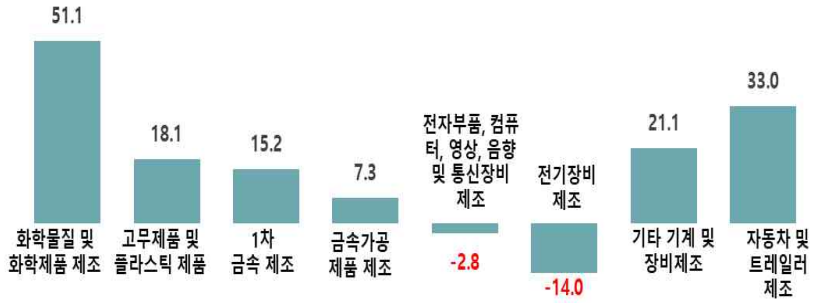
생산

6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재고 감소

광공업생산지수는 84.0으로 전년동월대비 7.6%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 광공업생산지수는 화학제품, 자동차, 1차금속 등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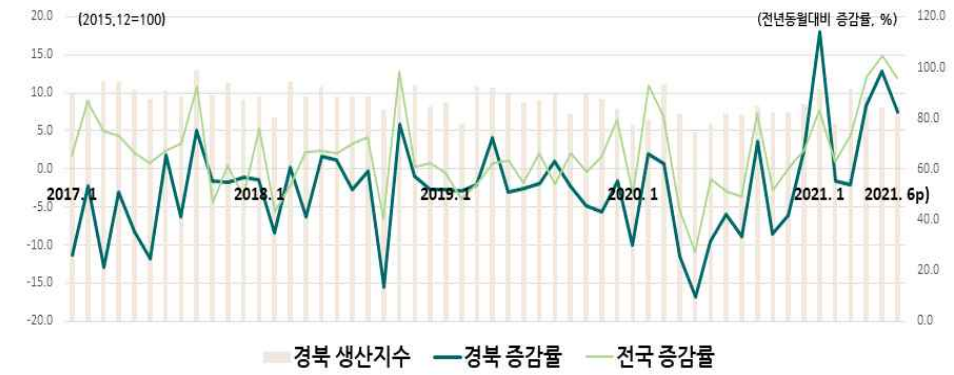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화학제품(51.1%), 자동차(33.0%), 1차금속(15.2%) 등이 증가
-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화학제품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등이 증가, 1차금속은 스테인리스강판, 봉강, 칼라강판 등이 증가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p	06p
87.0 (-1.8)	91.3 (18.0)	91.5 (18.2)	78.0 (-1.6)	91.0 (-2.5)	88.4 (8.3)	**84.3** **(12.9)**	**84.0** **(7.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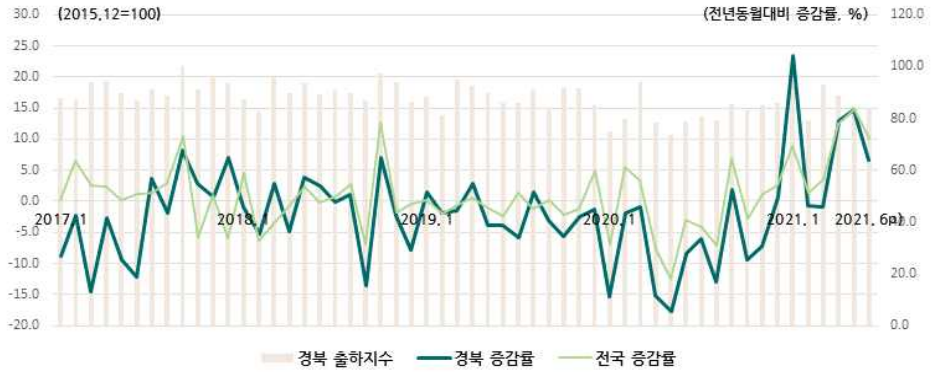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6.6% 상승, 전월대비 1.1%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자동차(53.2%), 기계장비(34.2%), 금속가공(30.3%)등이 증가, 비금속광물(-45.3%), 전자부품(-3.8%), 화학제품(-9.3%) 등은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p	06p
88.5	85.6	92.4	79.2	92.9	88.6	**84.7**	**83.8**
(-1.9)	(0.5)	(23.4)	(-0.5)	(-1.2)	(12.9)	**(14.8)**	**(6.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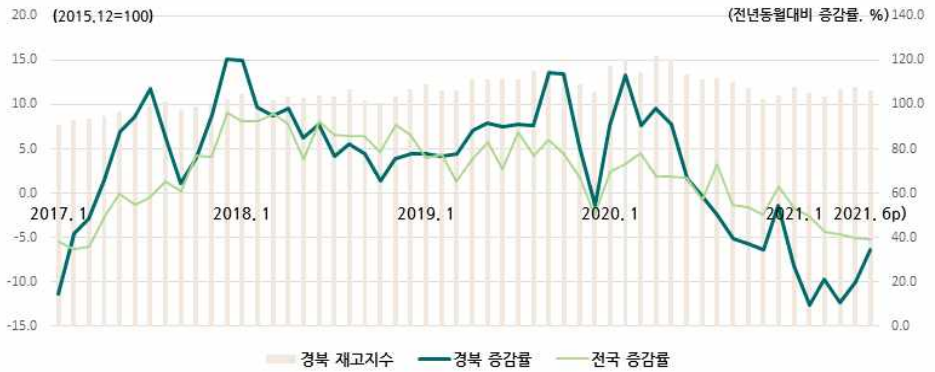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3%, 전월대비 1.8%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1차금속(73.7%), 전자부품(60.8%)등이 증가, 섬유제품(-26.9%), 종이제품(-21.5%), 의료정밀광학(-19.4%)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p	06p
105.6	104.1	107.8	105.2	103.4	106.8	**108.2**	**106.3**
(-1.5)	(-1.4)	(-8.2)	(-12.6)	(-9.7)	(-12.2)	**(-9.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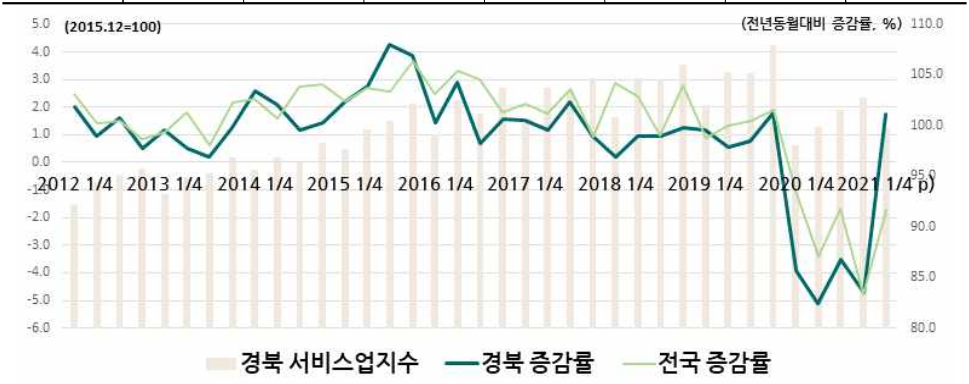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1.7% 상승, 전기대비 3.0%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2/4	3/4	4/4	1/4	2/4	3/4p	4/4p	1/4p
105.3	105.2	107.9	98.0	99.9	**101.5**	**102.8**	**99.7**
(0.6)	(0.8)	(1.8)	(-3.9)	(-5.1)	**(-3.5)**	**(-4.7)**	**(1.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6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6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전월대비 9.2% 하락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79.4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5.6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1.4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오락·취미·경기용품, 음식료품, 의복은 증가. 화장품, 신발·가방, 기타상품, 가전제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p	06p
대형 소매점	86.5 (-5.3)	84.9 (-2.0)	84.8 (-17.3)	88.6 (22.7)	80.2 (14.9)	79.5 (4.7)	**87.4** **(5.4)**	**79.4** **(0.8)**
대형마트	88.2 (-5.8)	88.0 (1.1)	89.1 (-16.4)	92.6 (21.4)	81.1 (7.0)	80.0 (0.9)	**88.6** **(5.1)**	**81.4** **(0.4)**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4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11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

○ 오락·문화(30.0%), 숙박·음식(28.7%), 의류·잡화(17.5%)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68.1%), 금융·보험(-18.0%)의 사용액 감소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09	10	11	12	01	02	03	04
966.4 (-2.4)	977.6 (-6.5)	979.1 (-5.5)	921.9 (-12.6)	896.5 (-13.4)	880.8 (1.5)	1,012.2 (27.5)	**1,011.3** **(17.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6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7,276대로 전년동월대비 15.1% 하락

○ 시스템반도체 및 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출고지연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74,747 (-1.4)	6,653 (0.6)	7,267 (17.8)	5,238 (18.2)	7,018 (13.0)	6,950 (5.5)	6,393 (-6.5)	**7,276** **(-15.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8	75,810	57,846	2,225	15,150	589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12.	6,653	5,093	166	1,315	79
2021. 1.	7,267	5,553	116	1,513	85
2.	5,238	4,026	69	1,090	53
3.	7,018	5,071	125	1,754	68
4.	6,950	5,193	71	1,604	82
5.	6,393	4,802	143	1,350	98
6.	7,276	5,181	138	1,867	90

투자

6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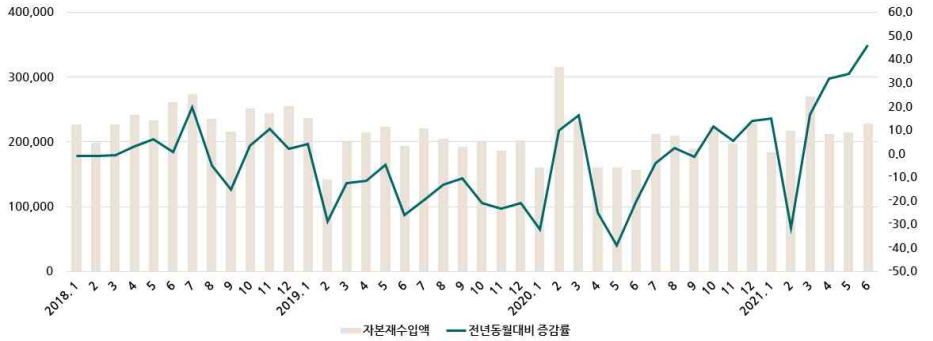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28,588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6.1% 상승

- 품목별로는 기계 및 정밀기계(45.8%), 전기 및 전자기기(43.3%), 수송장비(54.0%), 기타 자본재수입(73.7%)의 수입이 크게 증가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0		2021					
11	12	01	02	03	04	05	06
192,072 (5.6)	229,745 (13.8)	184,199 (15.1)	216,513 (-31.3)	270,024 (16.6)	211,687 (31.7)	215,085 (33.9)	**228,588** **(46.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6월 건축물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하락, 건축물착공면적 상승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9.9% 하락한 554,548㎡

- 용도별로 상업용, 공업용은 증가, 주거용은 하락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44.2% 감소한 119,152㎡, 상업용은 185.3% 증가한 156,422㎡, 공업용은 76.9% 증가한 98,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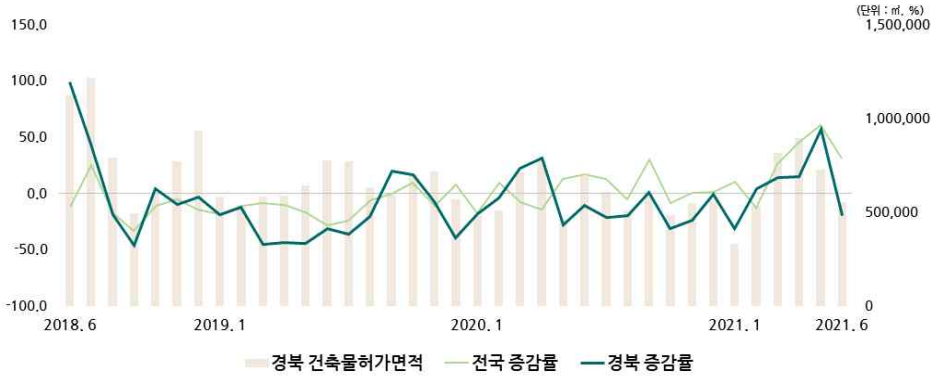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7.0% 상승한 814,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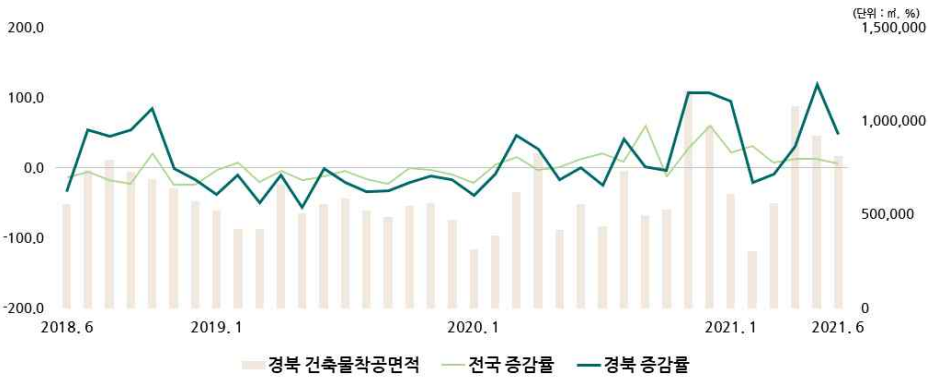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98.2% 증가한 423,114㎡, 상업용은 103.1% 증가한 111,337㎡,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53.6% 증가한 85,259㎡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건축허가면적	563,684 (-1.1)	331,265 (-30.9)	533,422 (4.4)	813,874 (14.0)	894,052 (15.2)	724,581 (56.8)	**554,548** **(-19.9)**
건축착공면적	976,147 (106.2)	612,410 (94.5)	304,915 (-21.4)	562,272 (-9.1)	1,078,797 (30.2)	919,423 (119.0)	**814,452** **(47.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6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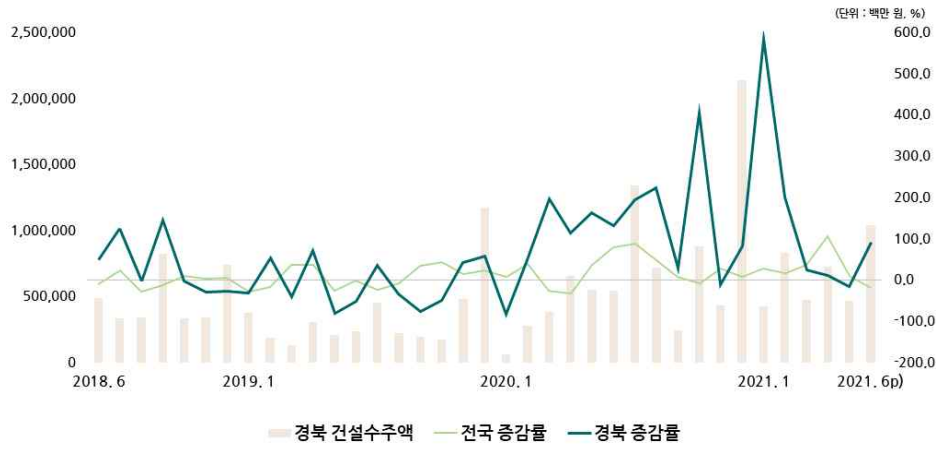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학교, 관공서, 공장·창고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91.7% 상승한 1,041,830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750,758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8.7%, 토목부문 291,072백만 원으로 0.4% 하락
- (발주자별) 공공부문 201,878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9%, 민간부문 826,492백만 원으로 761.9% 각각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p	06p
4,145,687	2,137,944	425,328	830,451	476,191	726,980	**470,456**	**1,041,830**
(-24.7)	(82.4)	(581.9)	(201.6)	(23.5)	(10.6)	**(-14.9)**	**(91.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6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3,34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3%, 수입액은 1,708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7.0%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1,639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3.0%), 무선통신기기(20.5%), 반도체(-26.7%), 평판디스플레이(31.8%)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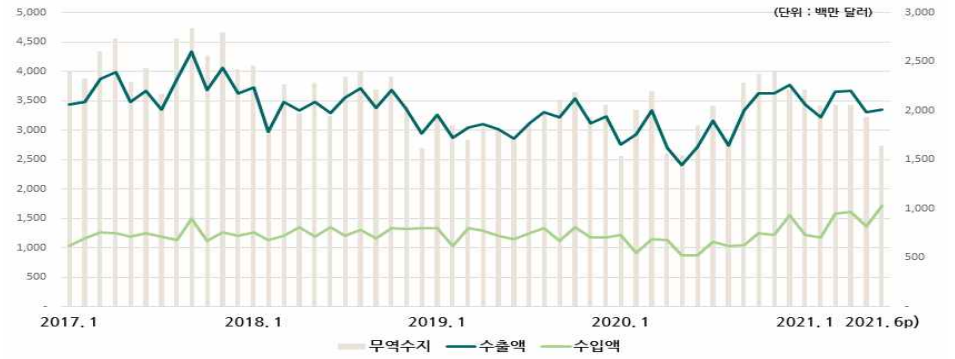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205.9%), 우라늄(0.0%), 석탄(32.1%), 알루미늄(87.4%)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10.1%), 미국(45.4%), 베트남(14.9%), 일본(19.4%) 순

○ 포항시 6월 화물수송은 5,284,257톤(R/T)으로 외항 4,301,515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p	06p
수출액	3,760 (16.4)	3,438 (24.7)	3,226 (10.2)	3,650 (9.4)	3,665 (36.0)	**3,308** **(37.0)**	**3,347** **(23.3)**
수입액	1,549 (31.1)	1,226 (1.4)	1,178 (28.8)	1,589 (38.4)	1,605 (40.6)	**1,372** **(57.5)**	**1,708** **(97.0)**
무역수지	2,211	2,212	2,048	2,060	2,060	**1,936**	**1,63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6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6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 명(-2.5%)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4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전월대비 1.4% 각각 증가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1,488 (0.0)	1,442 (-2.7)	1,419 (-3.4)	1,430 (-2.2)	1,452 (0.5)	1,468 (0.9)	1,480 (-1.1)	**1,467** **(-2.5)**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월 취업자 142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0.2%)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2만 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8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4천 명)은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4천 명), 제조업(-1만 9천 명), 건설업(-1만 3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0.2%)은 9대 광역도 중 가장 낮은 상승폭

○ 제조업 취업자수는 27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0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1,430 (0.3)	1,385 (-2.3)	1,334 (-4.2)	1,353 (-3.8)	1,383 (-0.6)	1,408 (0.9)	1,421 (0.1)	**1,421** **(-0.2)**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6월 고용률 61.6%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 3.1%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1.6%로 전국평균 61.3%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5.4%로 전국 66.9%보다 낮은 수준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2.2%p 감소한 3.1%로 전국평균 3.8%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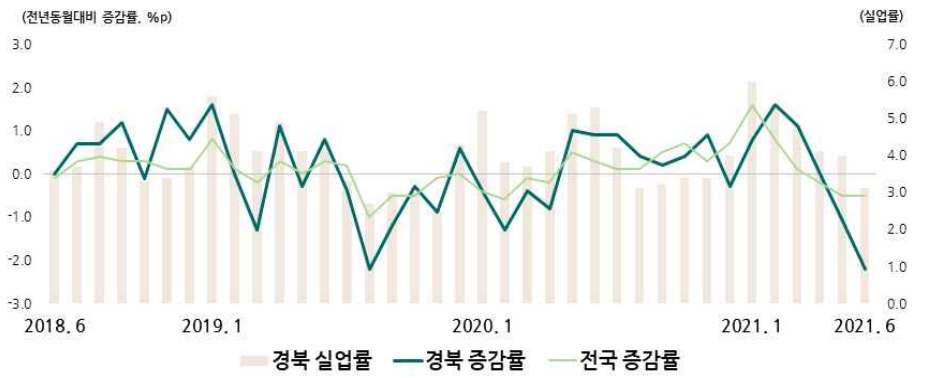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4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p)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고용률	61.7 (0.1)	59.7 (-1.4)	57.5 (-2.5)	58.4 (-2.2)	59.7 (-0.3)	60.9 (0.8)	61.5 (0.3)	**61.6** **(0.3)**
실업률	3.9 (-0.2)	4.0 (-0.3)	6.0 (0.8)	5.4 (1.6)	4.8 (1.1)	4.1 (0.0)	4.0 (-1.1)	**3.1** **(-2.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6월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영업자수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한 88만 7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일용근로자수(22.8%) 증가, 상용근로자수(-2.3%), 임시근로자수(-0.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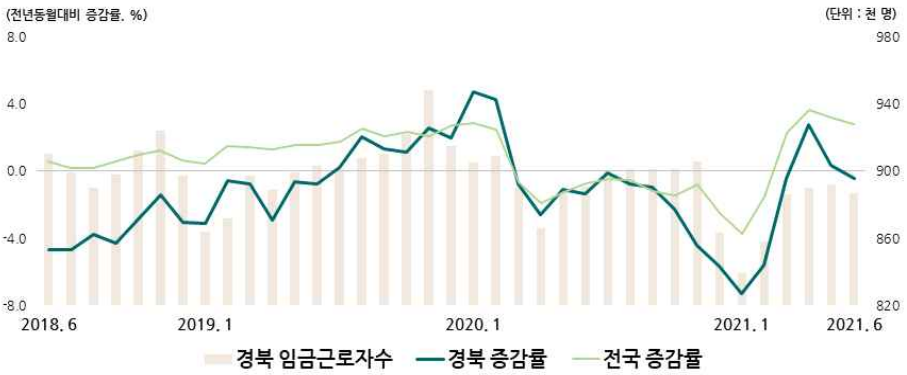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40만 2천 명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1.6%)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5.3%)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임금 근로자	902 (-3.3)	863 (-5.8)	839 (-7.3)	858 (-5.7)	886 (-0.4)	890 (2.7)	892 (0.4)	**887 (-0.5)**
자영 업자	402 (-0.1)	411 (4.1)	401 (4.5)	399 (1.3)	390 (-2.1)	398 (-1.0)	401 (-0.2)	**402 (0.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6.66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 전월대비 교통(1.7%), 오락 및 문화(1.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6%), 음식 및 숙박(0.5%)은 상승,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보건, 통신, 교육은 보합,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2%) 등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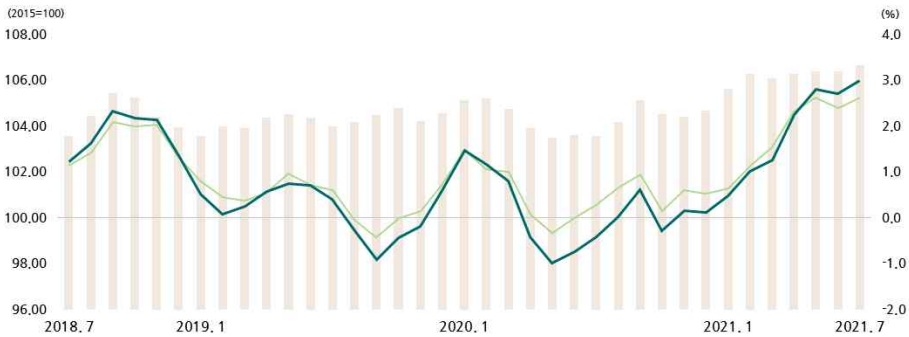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6.97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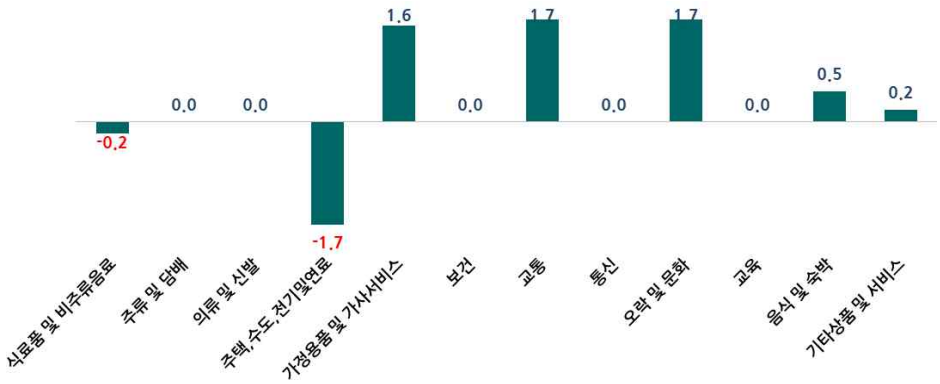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14.19로 전년동월대비 4.2%, 식품이외는 103.11로 3.9%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소비자 물가지수	104.39 (0.1)	105.63 (0.5)	106.28 (1.0)	106.10 (1.3)	106.27 (2.3)	106.41 (2.8)	106.41 (2.7)	**106.66 (3.0)**
생활 물가지수	104.29 (-0.2)	105.70 (0.1)	106.79 (0.9)	106.63 (1.1)	106.67 (2.6)	106.83 (3.6)	106.93 (3.4)	**106.97 (4.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5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한 15.7조 원으로 전월대비 0.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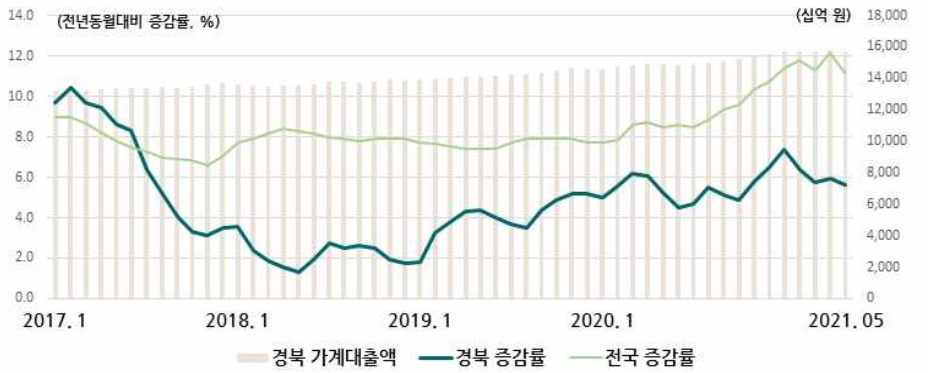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7조 원 중 가계대출은 32.8% 차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증가 지속

5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1	12	01	02	03	04	05
14,236	15,484	15,579	15,678	15,692	15,717	15,821	**15,717**
(4.0)	(5.8)	(6.5)	(7.4)	(6.4)	(5.7)	(5.9)	**(5.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0.5% 각각 하락

○ 총 가계대출 15.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5.2%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1	12	01	02	03	04	05
8,512	8,738	8,815	8,827	8,821	8,839	8,713	**8,668**
(3.0)	(0.2)	(1.6)	(1.7)	(0.5)	(0.3)	(-1.7)	**(-1.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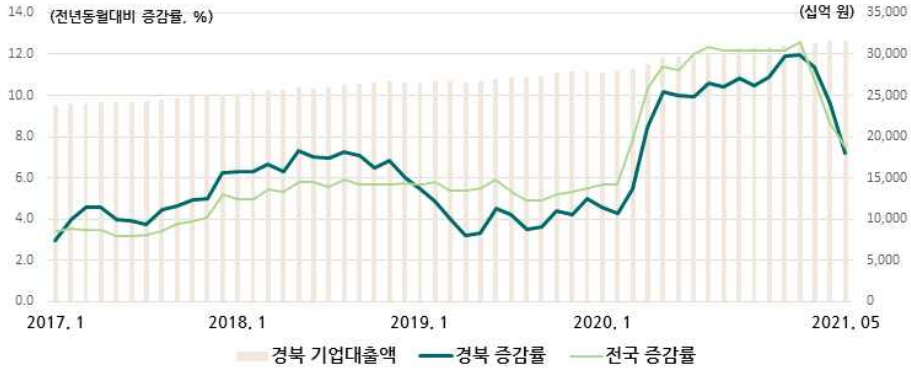
5월 기업대출액은 31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2% 상승한 31조 원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1	12	01	02	03	04	05
27,103	30,806	30,906	31,088	31,227	31,318	31,562	**31,615**
(4.2)	(10.5)	(10.9)	(11.9)	(12.0)	(11.4)	(9.6)	**(7.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4% 상승한 104.2

- 포항(8.9%), 구미(8.2%), 경산(3.7%)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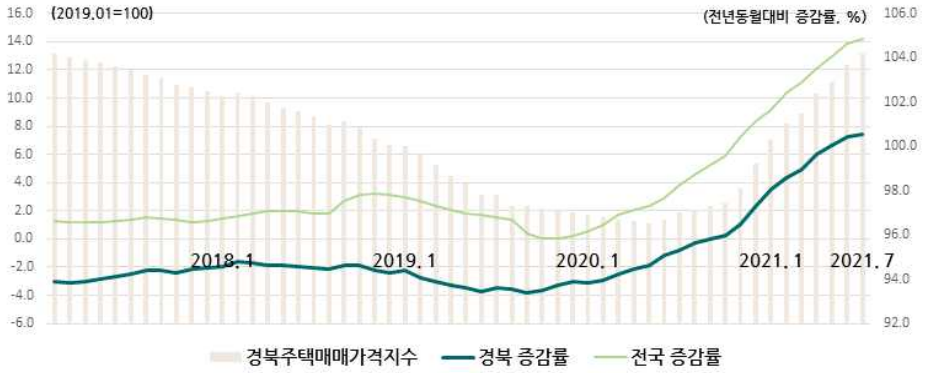
○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한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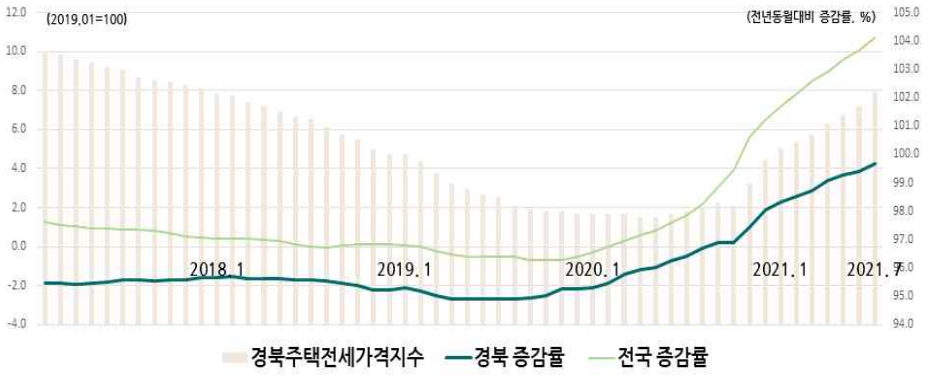
- 포항(6.0%), 구미(4.3%), 경산(1.3%)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07
매매	99.2 (2.3)	100.3 (3.5)	101.0 (4.3)	101.5 (5.0)	102.4 (6.0)	102.9 (6.6)	103.7 (7.2)	**104.2** **(7.4)**
전세	99.8 (1.9)	100.2 (2.3)	100.4 (2.6)	100.7 (2.9)	101.1 (3.4)	101.4 (3.7)	101.7 (3.9)	**102.2** **(4.3)**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7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7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한 106.1

- 포항(15.8%), 구미(11.8%), 경산(5.6%), 안동(5.6%)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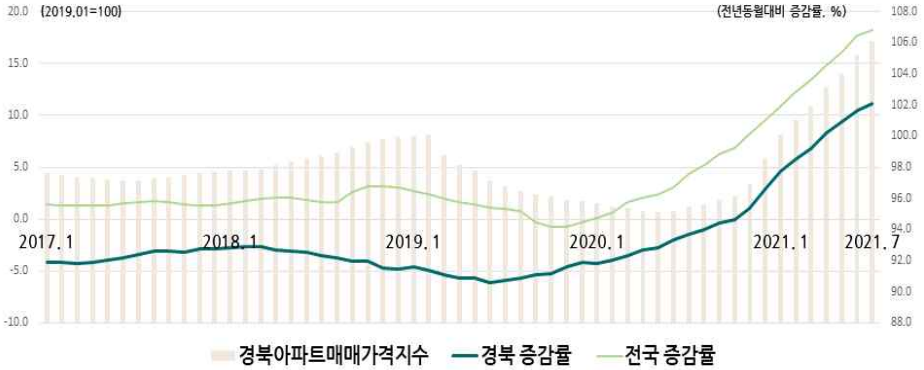
○ 7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한 1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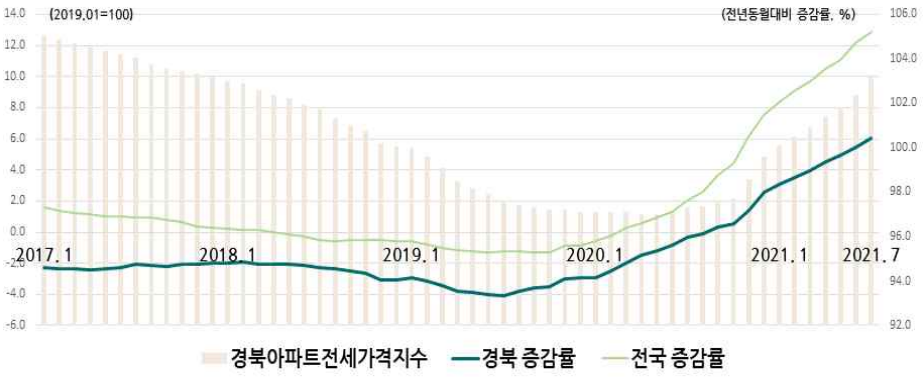
- 포항(10.2%), 구미(6.2%), 안동(2.1%), 경산(1.7%)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07
매매	98.6 (2.9)	100.1 (4.6)	101.1 (5.8)	101.9 (6.8)	103.1 (8.3)	104.0 (9.4)	105.2 (10.5)	**106.1** **(11.1)**
전세	99.6 (2.6)	100.1 (3.1)	100.5 (3.5)	100.9 (3.9)	101.4 (4.5)	101.8 (4.9)	102.4 (5.4)	**103.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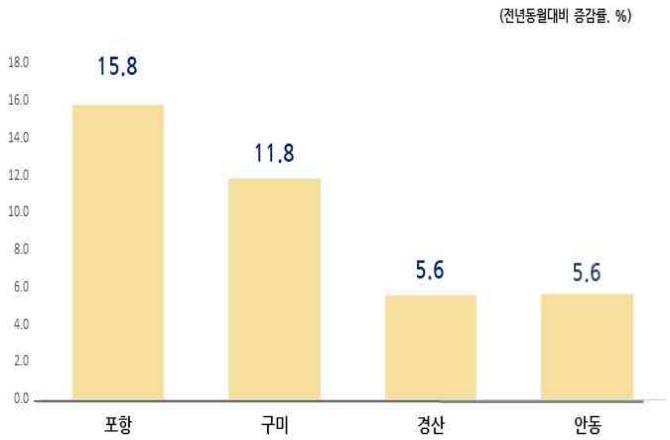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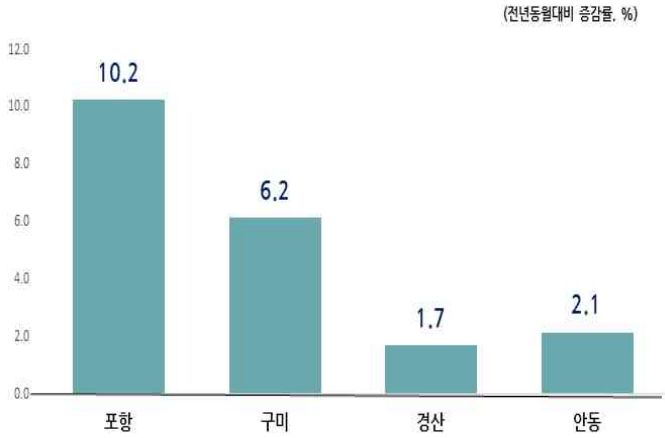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6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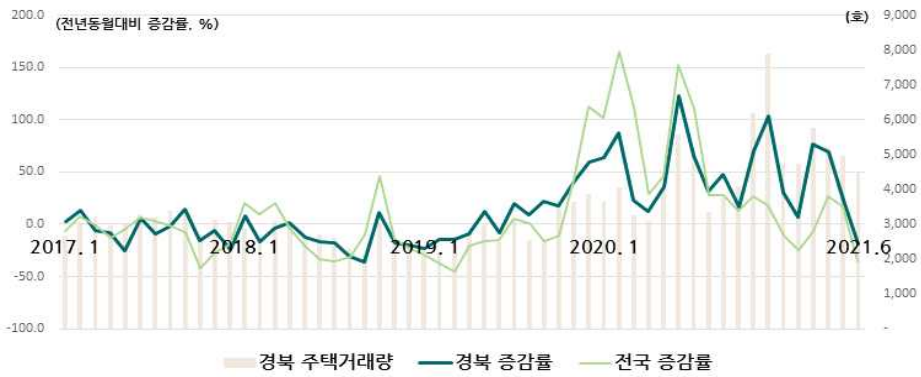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4,494호로 전년동월대비 19.4% 하락, 전국도 하락(-35.8%)

- 구미(-50.9%), 포항(-16.8%), 경산(-5.4%)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하락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34,513	7,875	4,732	4,333	5,755	5,216	4,951	**4,494**
(8.0)	(103.5)	(30.2)	(7.0)	(76.6)	(69.2)	(23.2)	**(-19.4)**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6월 미분양주택은 1,952호로 전월대비 118호 감소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천시(989호), 경산시(212호), 영천시(198호) 순

중소기업

6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7%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7%p, 전월대비 0.02%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13%이고, 경기(0.47%), 제주(0.26%), 강원(0.08%), 경북(0.07%), 충북(0.04%), 경남·충남·전북(0.02%), 전남(0.00%)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3.9억 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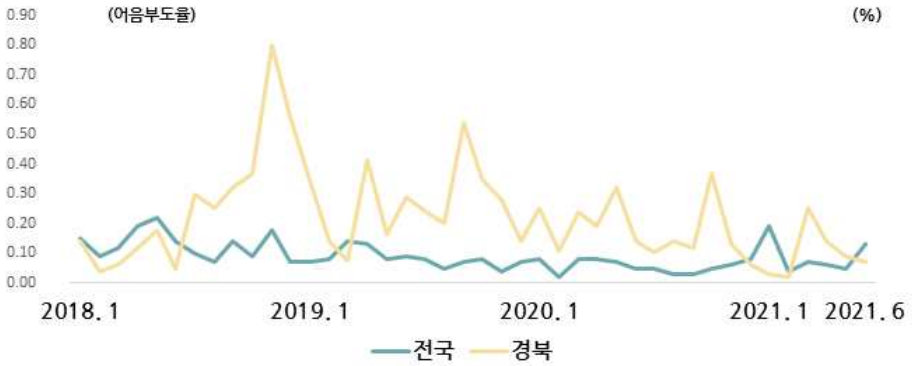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1개로 전년동월대비 1개 증가

- 총 부도 금액은 9.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억 원 감소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0		2021					
	11	12	01	02	03	04	05	06
어음부도율	0.13	0.06	0.03	0.02	0.25	0.14	0.09	0.07
부도업체수	4 4	0 -3	0 0	0 -1	0 -1	1 -3	1 -1	1 (1)
신설법인수	298 31	393 51	374 14	319 -32	363 55	322 -14	280 -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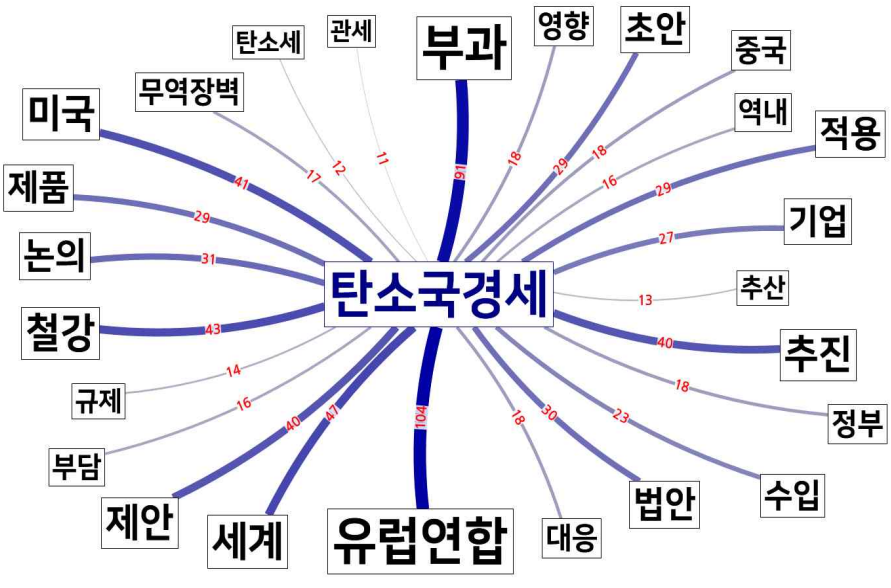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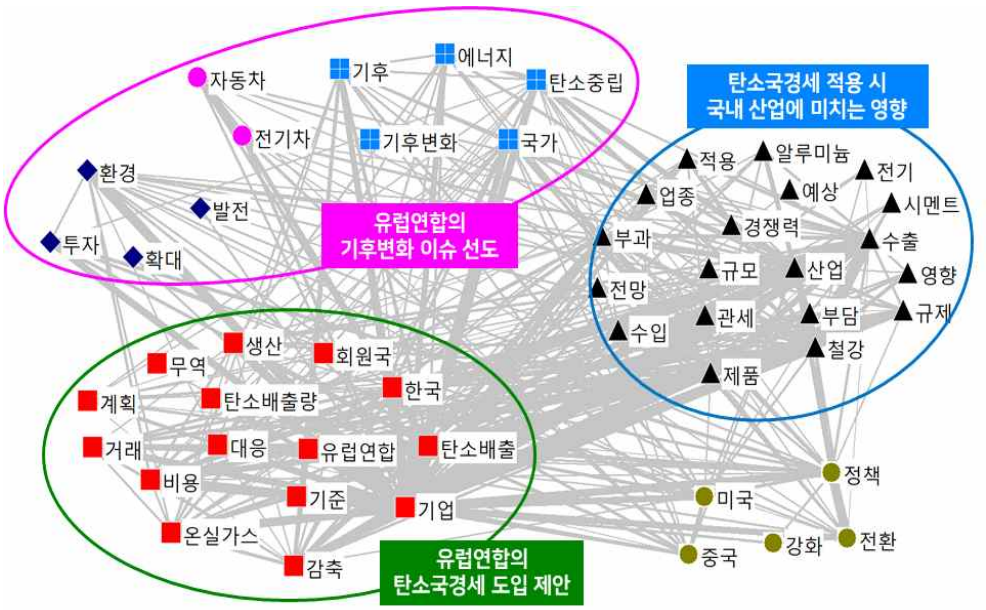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탄소국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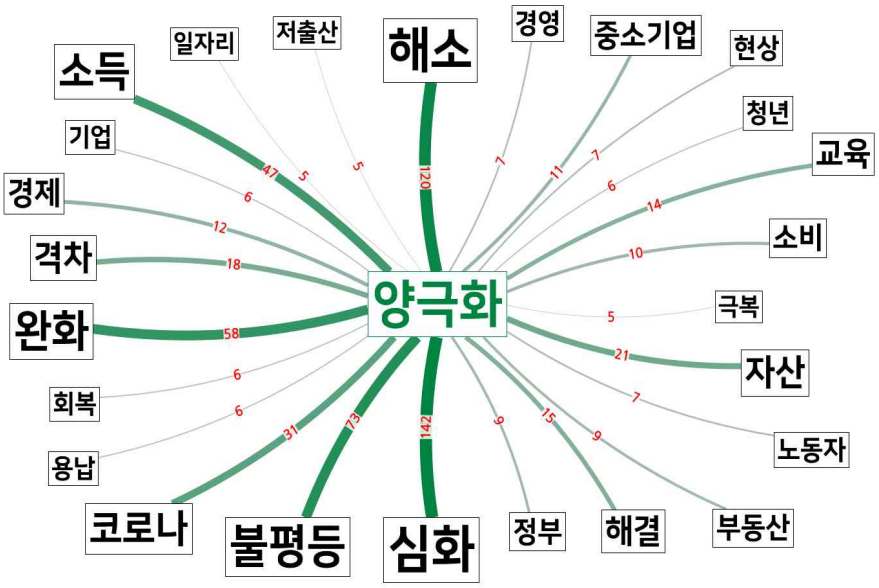


주요단어 : 유럽연합(104), 부과(91), 철강(43), 추진(40), 제품(29)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안과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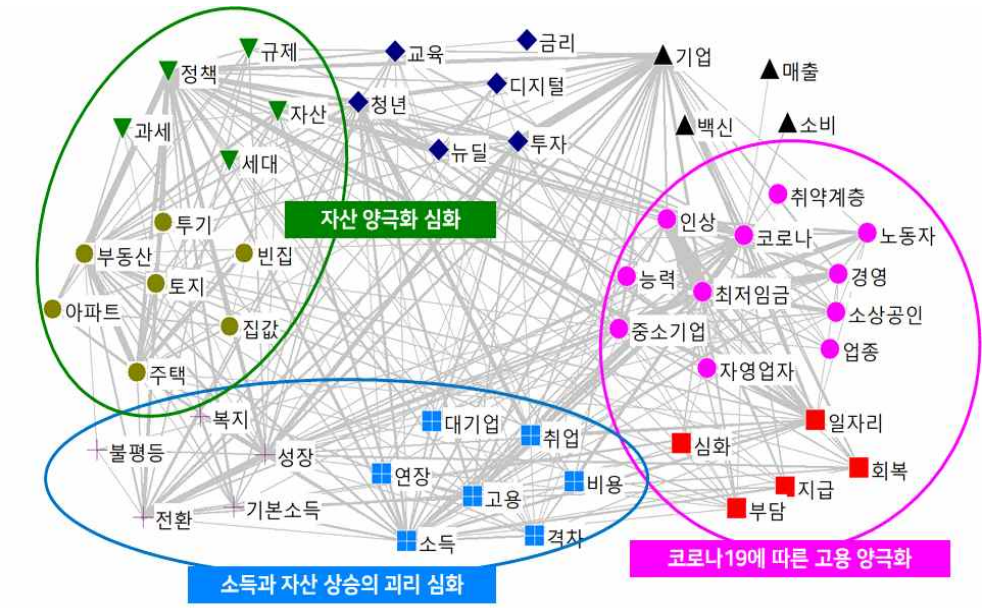


주요 주제 : EU 외 국가에 대한 동일한 탄소 배출 규칙을 적용하는 탄소국경세 제안과 철강, 시멘트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내용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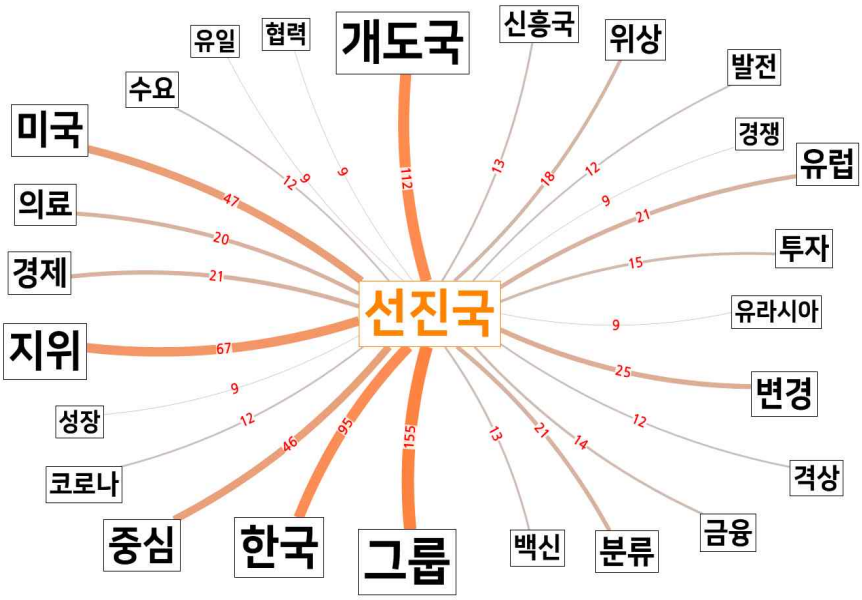


주요단어 : 심화(142), 해소(120), 불평등(73), 소득(47), 자산(21) 등
소득, 자산, 소비,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양극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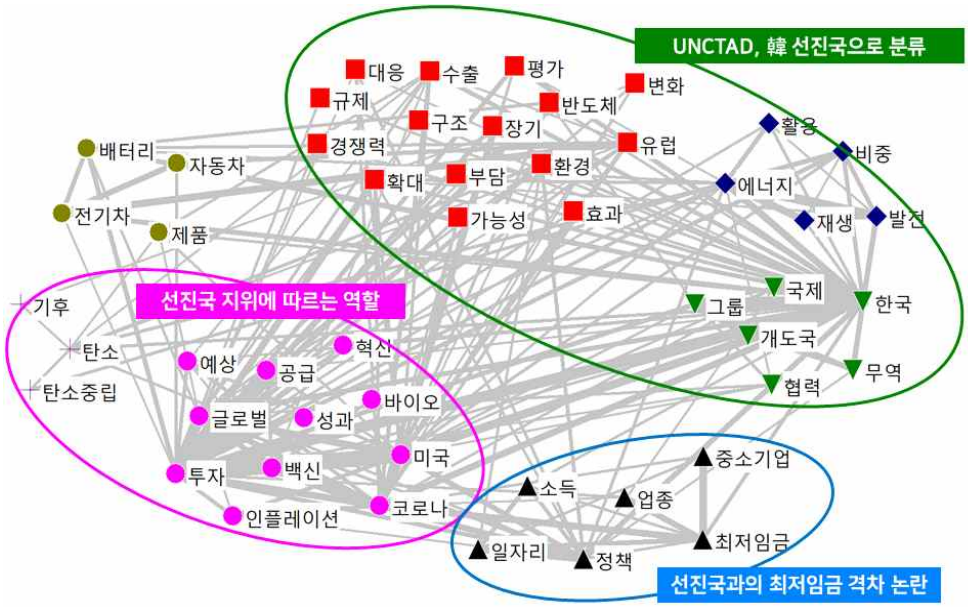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에 관한 내용

선진국



주요단어 : 그룹(155), 개도국(112), 지위(67), 변경(25), 위상(18) 등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주요 주제 : 한국의 위상 강화를 반영한 상징적 의미의 선진국 그룹 편입과 선진국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관한 내용

※ 분석 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27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탄소국경세 : 탄소국경세 도입, 국내 산업 전환 서두를 필요

〈연관 검색어 :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규제, 탄소중립, 가치사슬〉

▌현황

○ 7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Green Deal을 위한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
-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
-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55% 줄이기 위한 EU의 제반 정책에 대한 제안
- 배출권 거래제 범위 확대, 배출권 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저배출 교통으로의 전환 가속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료에 대한 규제, 적절한 조세 제도의 활용 등과 함께 새로운 탄소국경세 제도를 포함

○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이 실질적인 세계적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ms, CBAM)를 도입
- 유럽 내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탄소 배출 산업을 유럽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는 풍선 효과(Carbon Leakage)를 막기 위하여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안을 공개
- 총 11장 36개 조와 요약,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부속서에 적용 제품, 면제 국가, 제품 내 포함 배출량 계산식, 관련 정보의 관리, 검증 원칙 등이 포함
- 부속서 1에 제시된 적용 제품은 시멘트, 전기, 질산, 암모니아 등 비료, 철강 및 관련 제품, 알루미늄
- 과도기 규정을 두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의 직·간접 배출량 등을 보고할 의무만 부과
- 이후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영향

○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
-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핏포55를 발표하는 날, 미국 민주당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
- 아직 세율이나 방식은 미정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고, 주력 수출사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산업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김선진 외, 2021)
- 같은 연구에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1%, 금액으로는 약 71억 달러 감소하고 그 결과로 GDP는 약 0.28%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수출 감소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운송장비,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학제품 순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금속, 화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이 타격을 입는 것은 탄소국경세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음에 따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의 중국 수출이 줄어든다는 전망에 기인

▌대응

○ 정책적, 지역적 탄소중립 정책의 도입과 산업 전환 정책 필요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를 인정받아 탄소국경세를 감면받는 외교적 정책과 함께, 국내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체의 노력이 필요

- 기업의 탄소저감 생산기술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대책 등 포함)을 마련하고, 친환경 부품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우선 대응할 필요
-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가치사슬의 재편을 위한 장기 전략 비전을 시급히 마련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Green Deal : Commission proposes transformation of EU economy”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society to meet climate ambitions”
산업연구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선진 외,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문진영 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겨례,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 시작”

2. 양극화 : 자산과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

〈연관 검색어 : 코로나19, 양극화, K자 경제회복, 디지털디바이드〉

1) 현황 : 코로나와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코로노믹스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기, 방역과 경제사이, 코로나19가 양극화 부채질

○ 미국, 바이러스는 평등한가? “자본주의가 바이러스다, 저항이 백신이다” 구호

○ 위드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 일상화로 삶의 방식 진행 가능성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및 각종 격차 발생

○ 바이러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 바이러스가 만든 불평등, 국가의 역할 강조, 재원 충당은?

○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기본소득제, 고용안전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

▌자산, 소득, 고용, 교육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 격차증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실물 회복 없는 상태에서 주가 및 주택가격 폭등, 엄청난 통화량 증가, 저금리로 인한 격차

※ 2020년 주택시세 670조 상승, 가구당 순 자산 1년 만에 10% 상승,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차이, 국가의 부를 부동산이 끌어올려 자산양극화 심화, 빈부 격차 심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임금 하락(소득과 자산의 격차 심화)

○ 벼락거지 신조어, 자산 격차의 발생은 그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

○ 자산의 불평등 강화, 세금강화, 누가 일하려 하는가 등 근로의욕 감퇴, 세금에 대한 신뢰 필요, 세금으로 확충하는 복지(스웨덴 40% 세금), 억만장자세, 보유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논란

→ 의료복지, 교육에 대해 국가 의존 심화, 신뢰와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 필요

○ 1분위 소득계층과 5분위 소득계층간의 소득 격차 심화

○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근로자 외 가구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이상, 실질)

(단위 : 원, %)

가계수지 항목별	2020 1/4			2021 1/4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소득(경상+비경상)	4,308,681	5,093,792	3,123,281	4,222,910	5,024,469	3,044,820
경상소득	4,196,577	4,989,761	2,998,988	4,154,165	4,946,284	2,989,950
근로소득	2,843,116	4,325,301	605,242	2,757,384	4,285,296	511,736
사업소득	737,825	196,140	1,555,688	700,874	167,692	1,484,519
재산소득	36,988	31,749	44,897	30,208	24,914	37,988

이전소득	578,647	436,571	793,162	665,700	468,382	955,707
비경상소득	112,104	104,031	124,293	68,745	78,185	54,870
가계지출	3,195,490	3,625,014	2,546,974	3,165,217	3,640,957	2,465,998
소비지출	2,331,630	2,549,944	2,002,009	2,319,449	2,571,042	1,949,671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소득	1.3	0.7	3.8	-2.0	-1.4	-2.5
경상소득	0.4	0.1	2.2	-1.0	-0.9	-0.3
근로소득	0.3	0.2	13.6	-3.0	-0.9	-15.4
사업소득	-1.1	5.3	-3.6	-5.0	-14.5	-4.6
재산소득	14.8	1.1	34.1	-18.3	-21.5	-15.4
이전소득	1.9	-2.4	5.1	15.0	7.3	20.5
비경상소득	51.8	40.9	68.3	-38.7	-24.8	-55.9
가계지출	-6.6	-6.4	-6.5	-0.9	0.4	-3.2
소비지출	-7.5	-7.8	-6.4	-0.5	0.8	-2.6

주 : 1. 경상소득(current income) :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으로부터 혼합소득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등으로부터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등으로 부터 이전되는 소득 등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근로소득(employee income) :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급여 소득, 상여금 등을 포함(조세 및 공과금등 공제되기 전 총액을 기입)
3.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 :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4. 재산소득(property income)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5. 이전소득(current transfers received)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수혜 등, 사적이전소득 : 타가구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생활비 보조
6. 비경상소득(irregular income)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 이상, 실질)

○ 고용 및 일자리 격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 일자리와 임금은 감소하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2020년 대구경북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증가하였지만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임금은 감소
-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락하였음

→ 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심화 → 코로나 19의 영향력으로 파악됨

〈표 2〉 대구경북 종사자지위별 임금

(단위 : 만원, 시간)

구분	2019년 상반기(A)		2020년 상반기(B)		차이(B-A)	
	임금	주당 근로시간	임금	주당 근로시간	임금	주당 근로시간
전체	249.2	41.3	263.6	38.6	14.4	-2.7
상용근로자	298.7	43.2	310.4	39.6	11.7	-3.6
임시근로자	140.1	32.8	136.2	32.4	-3.9	-0.3
일용근로자	144.8	32.0	143.2	29.6	-1.6	-2.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2020년 상반기(1월~6월)

○ 팬데믹 시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대 및 대학생 등 청소년들의 여타 세대와 대비하여 교육격차 심화 문제,

→ 3가지 격차(자산, 소득, 고용, 교육)는 단기에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 가능성, 스테리시스, 경로의존성으로 지속 가능성

2) K자 회복과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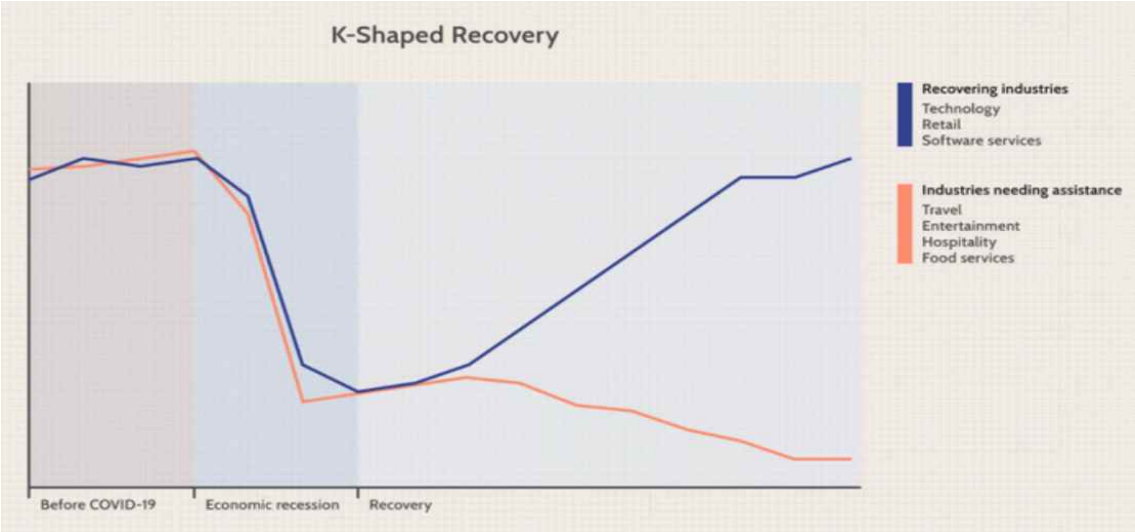
▮ K자 경제회복(K-shaped Economic Recovery) 추세

○ 급속도로 회복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의 양극화 경제회복 모델로 진전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K자 경제회복' 으로 전망 가능성

- 코로나19 이후 회복 경로가 V자인지 L자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K자 회복양상 뚜렷

○ 경제회복의 양극화는 국가/지역별 재정여력에 따른 차이, 산업군/사회계층별에 따른 차이 발생



자료 : https://blog.naver.com/uniknak/222196371187

〈그림 1〉 K자 회복의 양 갈래

▮ 쟁점사항

○ 산업군에 따라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유연한 비대면 산업군의 빠른 회복 반면,
- 관광, 요식, 전통적 도소매업 등 대면적 산업군의 더딘 회복
- 사회계층별 양극화는 현재도 있으나 더 심해질 것
- 포스트코로나19 의 경제전망은 K자형 회복이라 예측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 논란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 전자상거래·자동차 관련 카드 사용액 20%대 증가, 코로나 이후 카드 소비도 '양극화' 숙박·음식업은 고용까지 감소

3) 정책방향

▮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새로운 산업 경제 시스템의 과감한 도입과 안전망 구축

- 코로나19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비대면 무인시스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 간편결제 서비스, 유연근무제 등을 거부감 없이 빠르게 정착 필요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지 않고 접촉을 최소화하며 결제 할 수 있어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제택근무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비대면 무인 시스템은 그동안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접근하기 어렵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탁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무인 판매 및 배달 판매 강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의 원거리 배송 시스템 등 지원 체제 마련

▮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

○ 디지털 디바이드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소득계층 및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및 각종 격차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 증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취약성 확인과 지원체계 마련
- 고용제도에서 있어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의 중간지대 지정 지원
- 새로운 형태의 고용안정망 지원, 이동노동자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회안전망 강화

○ 비대면 다문화 교육이 효과적, 비대면이 소외계층에게는 오히려 도움
→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다문화 전용공간 및 장비 확보, 외국어 화상교육 장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등 “스튜디오 예산확보 필요”
→ 경상북도는 720개국 14,450명의 다문화 여성이 분포, 이중 상위 20%만 글로벌레이디로 활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출에 도움이 되고 현지화 전략 마련 등 글로벌 자원으로 활용 가능

○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 교육 필요(디지털 디바이드 완화)

○ 취약계층의 요양원, 요양병원, 소방서, 경찰 연계 응급(긴급)재난체제 마련
→ 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화, 예술, 레저 등 프로그램 개발
→ 퇴직의사, 간호사, 간병인 인력 DB마련 및 체계적 관리 통한 위기 대응 시 활용

3. 선진국 : 한국, 선진국 지위 격상에 따른 영향

〈연관 검색어 : UNCTAD,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룹 B, 중재자〉

▌현황

○ 한국, 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

- 7월 2일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한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 만장일치 가결
- 외교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 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 추진의 성과로 인정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을 그룹 A(99개), 그룹 B(31개), 그룹 C(33개·중남미), 그룹 D(25개·러시아-동구권) 등으로 분류

○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원조를 받기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문을 두드린 나라가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공인됐다는 상징적 의미

-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 주요 현안에서 그룹별로 목소리를 낼 때 선진국과 의견을 맞추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이미 한국은 미국 등 주요국이 운용하는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한국이 속속 제외되는 추세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상징적 의미

▌영향

○ 농업은 선진국으로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 1995년 출범한 WTO는 개발도상국을 국제 자유무역 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한국도 수혜
- WTO에 이어 UN에서까지 선진국임을 천명하여 더 이상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농업 분야는 보조금이나 관세 감축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
- 선진국 지위로 인해 쌀 관세율이 513%에서 더 낮아지는 등 농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 발생 가능성
- 한·칠레, 한·아세안, 한·미 등 9개 FTA가 발효된 뒤 5년 간 농어업분야 생산 감소 손실은 4,598억 원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증가 이익 64조 7,000억 원에 비해 손실 진행 중
- 선진국 지위 격상이 기존에 체결된 농업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향후 다가올 수 있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받는 나라에서 주는 국가로, 무상 원조 확대 및 분담비용 증가

- 한국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2010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인정
- 정부는 2022년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2021년 대비 4,579억 원(12.3%) 증액한 4조 1,680억 원으로 책정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한국의 ODA 역량을 관련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 및 양허성 차관을 의미

-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지출해야 될 공여금과 국제기구 등에 지불할 분담비용 증가 예상

○ 탄소중립,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 적극 동참

- 이미 한국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면서, BAU(배출전망치)가 아닌 절대량(536백만t)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진국에 준하는 의무를 지기로 함

-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포함해 기후변화 선도국을 자처한 한국은 기후재원 기여에 맞닥뜨리게 되어 202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기여를 더 큰 폭으로 확대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개발도상국 지원, 미·중 간 민감한 현안까지 입장 표명
-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며, 철저한 전략적 접근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

▮ 대응

○ UNCTAD의 선진국 지위 격상은 선언적 의미 이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2010년부터 받는 나라에서 주는 역할로 바뀐 한국은 이미 공여국으로 기구의 주요 기능인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협상그룹에서도 이미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이 속한 JUSCANZ(OECD 회원국 중 EU가 아닌 국가들의 모임)에 속해있어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에 불과
- 한국은 2019년 10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 국제 무역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이지만, UNCTAD 선진국 그룹 진입은 한국의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전망

○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역할 부여에 대한 대비 필요

- 현재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국민총소득의 0.15%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불과해 앞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확대 요구에 따른 전략적 방향 모색 필요
-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출발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써 기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룹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풀 조정 중재자 역할 기대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전 문 위 원 : 한장협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